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최근에 감사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나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찬 200장) / 우릴 사용하소서 / 우리 함께 기도해 /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말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1-12절 | 개역개정)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갑니다”**1.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니체, 칼 마르크스, 버트런드 러셀,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과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같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혼란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신하건대,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소속감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나는 누구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아주 강렬한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수명이 길고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속감이 결여되면 외로움, 소외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때 소속 집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며, 사회성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회사 같은 집단에 속하며 강한 소속감을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3.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강한 소속감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리를 배우고, 음식을 먹고, 사역을 하면서 강력한 결속력이 생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를 기반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가장 견고한 모임입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는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4. 슬기로운 교회생활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더 섬세한 소속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대일 모임이나 셀모임 같은 소그룹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안정된 소속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경험은 성숙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교회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는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며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진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앞으로 우리 셀과 교회가 어떻게 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2. 전도서 4장 9-12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누군가에게 줄이 되어준 경험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 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고, 현재 그 일이 그 사람과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야기해봅시다.
3.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고전1:10)’을 이루려면 어떠한 핵심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1.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게 하소서

- 과학과 철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진리와 위로를 찾아 교회로 모이게 됨을 믿습니다.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소속감과 정체성을 누리게 하소서

-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소서.
-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동탄꿈의교회 성도다.” 이 고백이 삶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2. 작은 모임(셀) 안에서도 진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교회 안의 셀, 일대일, 교사모임, 찬양대 등의 소그룹 안에서 더 친밀한 사랑과 섬김을 나누게 하소서.
-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며, 갈등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